





## 용인시 백군기 시장 “대유행 갈림길 방역 수칙 준수해달라”

용인시, 22일 확진자 29명 발생 등 관내 확산 추세에 시민들에 특별 당부

백군기 용인시장은 23일 “4차 대유행이 코앞까지 다가온 엄중한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국내 확진자가 지난 1월 7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 797명으로 나타나고, 관내 확진자도 29명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중대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확진자가 기본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다중시설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도 추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백 시장은 “현재 단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다시 큰 불편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 올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백 시장은 “따스한 봄날 이를 떠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주말 외출 시 마스크 쓰기과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며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발열, 감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석 제1부시장은 봄꽃 정원축제가 진행 중인 처인구 원삼면 농촌테마파크를 찾아 QR코드 인증, 동시 입장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오 부시장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수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 세무서 신설 논의

거제시-통영세무서 각자 역할 분담, 적극 추진기로 협의

경남 거제시가 고용노동지청, 연금관리공단 등 주요 기관들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거제 세무서 신설 또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거제시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23일 오전 시장실에서 최기영 통영세무서장을 만나 ‘거제세무서 신설’의 필요성과 향후 관련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면담에는 이광호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도 함께 했다.

변 시장은 “현재 거제지서는 민원 과 세원분야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거제시의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사소명 등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왕복 3~4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분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인사업자 등 거제 지역 세정수요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 제공과 지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세무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의 납세인원과 세수규모 등 지역 현황에 따른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다”며 “최근 행정안전부에 거제지사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 “여럿이 함께하면 이뤄진다” 지구의 날 ‘탄소 제로 저탄소 생활 실천’ 당부

제51회 지구의 날 기념, 자전거 퍼레이드, 기후변화 콘서트, 소등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마련,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고민

광명시가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로 지구 살리기에 앞장섰다.

시는 이날 자전거와 초소형전기자동차 퍼레이드,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10분간 소등캠페인 행사를 열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탄소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세계기념일로 올해가 51주년이 되는 해이다.

광명시는 이날 오전 10시 광명 YMCA 주관으로 자전거, 초소형전기자동차 퍼레이드 행사를 열어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자전거 30대와 초소형전기자동차 4대가 저탄소 생활실천 행동 수칙이 적힌 깃발을 달고 ‘광명시평생학습원-광명경찰서 삼거리-북계천삼거리-하안사거리-신촌사거리-가리대사거리-우체국사거리-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코스로 퍼레이드를 진행해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오후에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세 번째 이야기를 열었다. 행사에는 철산초등학교 기후대응 동아리 학생 20여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퍼포먼스를 벌이며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토크콘서트는 맹소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에서는 이유진 박사(녹색전환연구소 이사)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이어 개그맨 송영길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순희기자

##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흥선행복마을 현장 방문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4월 22일 의정부시 가능동 73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흥선행복마을’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 7월 착공 예정인 주민거점공간(생활SOC) 건립 및 주민소통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지금까지 흥선행복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주민협의체와 주민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흥선행복마을”은 우리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 공동이용시설 등의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동시에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 지역의 마을주민 및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육성하고 참여인력을 발굴해 야하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거점공간(생활SOC) 조성, 공폐가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소통 공간조성 외에도 마을 관리체계구축,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환경개선,

한영기기자

우리의 착한 전환”을 주제로 미니 특강을 열었다.

2부에서는 ‘광명의 탄소중립 노력’, ‘기후변화를 역행하는 우리의 삶’,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광명! 미래는?’을 주제로 박승원 광명시장, 맹소영 아나운서, 이유진 박사, 개그맨 송영길, 한지성 학생과 함께 공감토크를 진행했다.

이유진 박사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타지자체보다 앞서 기후에너지과를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주시는 광명시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작은 오솔길도 많은 사람이 다니면 큰 길이 된다. 광명시 공무원이 출산 수범으로 저탄소 생활실천에 앞장서겠다”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오후 8시 지구에 휴식을 주는 ‘10분간의 소등 캠페인’으로 광명시 산하 건물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등 행사를 진행하며 지구의 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8년 9월 기후에너지 문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넷제로 에너지카페,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기후에너지 동아리, 기후에너지, 10.10.10. 소등 운동,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주차공간 확보 및 시스템 개선, 쓰레기 처리공간 조성 및 관리, 전진주·통진주 정비 및 주택개량 지원사업과 같이 총 9개의 세부사업과 25개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정비 및 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마을 스스로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 재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흥선행복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장덕천 시장, 시민과 함께 부천형 뉴딜 정책 스케치

22일, 부천형 뉴딜 9개 대표사업 시민공유 및 다양한 의견 청취

부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만남실에서 부천형 뉴딜사업을 소재로 온라인 정책토크콘서트 ‘부천이 열어요! 뉴딜랜드’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마련한 부천형 뉴딜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덕천 시장과 정재용 교수(카이스트 전산학부, 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이훈희 원장(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출연했고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 40여 명이 온라인(ZOOM)으로 함께 참여했다.

행사는 한국판 뉴딜과 부천시 뉴딜정책 소개 영상으로 시작해 도시·사람·자연 3개 분야 9개 대표사업을 주제로 출연자 간 대화를 나누고, 사업 실무담당자들의 사업설명 영상 상영과 참여시민 기대사업 선정 투표, 마지막으로 참여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행사에 출연한 정재용 교수는 “부천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부천시민이 가장 필요한 교통, 안전, 환경 세 분야 사업을 어느 도시보다 앞선

데이터, AI기술 기반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훈희 원장은 “그린모빌리티 기술력이 너무 빨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안전관리와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시민들은 뉴딜정책 중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미래인재육성, 미세먼지 클린존 사업을 선호 사업으로 꼽아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부천시 직면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인재육성 지원, 스마트 돌봄, 부천시의 특화된 정책에 대한 홍보 확대 등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및 대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을 만들어갈 핵심정책에 대한 시민공유 기회가 적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종식 후 더 많은 정책을 가지고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시민참여 등 원칙을 가지고 기초부터 탄탄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 권영세 안동시장,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중점관리시설 7,292개소 집중점검 나서



권영세 안동시장은 4월 23일 오후 3시 코로나19 브리핑을 실시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권영세 시장은 “64%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확진자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안동은 4월 동안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가 의심증상으로 안동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확신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안동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 받아 줄 것”을 독려했다.

안동시는 관내 식당·카페 등 중

점관리시설 7,292여 곳에 대한 철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밀집·폐쇄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경상북도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7일에는 관내 목욕탕 24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각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주께서는 출입명부 작성, 발열 체크, 환기·소독, 공용물품 이용 최소화 등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당부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 경기도, 노동존중세상 실현 앞당길 '2021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노동존중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생계 및 고용안정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공적수당을 도입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5~9일 진행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노동정책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대 등 복잡 다변화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의 지방분권 강화와 보다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추진해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의 보호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의 5

대 추진전략 118개 단위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도 노동정책 시행계획보다 55개 과제가 신규로 더 발굴됐다.

도는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8월까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 국회,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 등에 앞장 설 예정이다.

더불어 급증하는 내내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고려해 별도의 '경기지방 고용노동청' 신설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국회, 노동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배달라이더 및 커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

다. 동시에 안전한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2020년 10명에서 2021년에는 31개 시군 104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35개 소방관서 소방파트롤팀 109명을 활용해 무허가대형 공사장의 무허가 위험물을 단속한다. 또한 올해부터 건설안전 정책개발을 위한 총괄협의 조정 기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도 운영한다.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해 보상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적수당'을 도입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플랫폼 노동자, 현장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아파트 경기노동자 휴게시설 120개소, 외국인 노동자 쉼터 17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 1,700명에게 휴가비(1인당 최대 25

만 원)를 지원해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보수를 돕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저소득 노동 청년들의 금융역량을 키우는 '청년노동자 통장',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마련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취약노동자가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 한 자조모임을 구성해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5개 모임의 조직화를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노동정책 홍보 등)지원과 도-시군 노동상담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지역 밀착형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민간위탁사무 추진 전 반드시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고, 도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한다.

이 외,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공정 계약심사,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등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필요로 노동정책 전달체계 강화, 노사민정협의회 내실 운영 등 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상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등 '노동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부서별 협의체' 구축을 추진해 효율적 산업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규식 노동국장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올 한해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 하남시, 건설공사장 현장소장과 간담회 '미세먼지 저감' 논의

김상호 시장과 주요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70여 명 참여, 온라인으로 개최

하남시는 지난 22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건설공사장 현장소장과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건설공사장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비산먼지 발생 관리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관내 주요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7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비산먼지 저감 관리방안, 공사장 현장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상호 시장은 "건설현장 작업환경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시에서도 현장소장 분들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관내 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와 식자재 업체를 이용해 주실 것과, 특히 하남 시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소장들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수시로 살수를 진행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에 힘쓰고 있으며,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간담회를 계기로 비산먼지 억제에 위한 노력이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화되길 바란다"며 "폐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1:1로 관리하는 일공일공(1개의 공사장에 1인의 공무원을 배치)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맞춤형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실내 미세먼지 무료측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수기자

## 의정부시,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정부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으로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시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고,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원불편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4인가구 3,657천원)이면서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3억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소득안정지원자금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50만 원(가구원 수 무관/1회 지원)이며, 소득·재산 및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휴일 제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타 지원체도를 통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 5. 10.(월) - 5. 28.(금) 22:00  
방문: 읍면동 방문 신청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신청 신청기간: 2021. 5. 17.(월) - 5. 28.(금)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증환자 한시생계지원 1577-9333

## 남양주시, '2021년 남양주시 도서' 선정

남양주시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시민의 추천을 받은 도서를 '2021년 남양주시 도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남양주시 도서' 선정을 위한 시민추천 도서공모 이벤트를 진행, 시민 316명의 추천을 받은 도서를 대상으로 1차, 2차 도서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분야별 최종 도서를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는 어린이 분야 "짱 없는 뽑기 기계(곽유진)", 청소년 분야 "달려구트 꿈 백화점(이미예)", 성인 분야 "시선으로부터(정세랑)"로 총 3권이다.

도서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린이 동화이지만 어른들의 마음도 요동치게 하는 이야기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짱 없는 뽑기 기계)', '잠을 자며 꿈을 꾸는 시간은 쓸모없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다.(달려구트 꿈 백화점)',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낸 이야기가 좋았습니다.(시선으로부터)', 등을 추천이유로 밝혔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딩캠페인(Reading Campaign)', 코로나블루 BOOK-백신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첫 번째 행사인 도서공모에 이어 낭독챌린지, 독후감공모전, 북살롱 등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연이어 운영할 계획이다.

2021 남양주시 도서 선정

어린이: 짱 없는 뽑기 기계 (곽유진 / 비룡소)  
청소년: 달려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 책두리앤)  
성인: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 문학과지성)

남양주시 도서관정책과 031-590-4756

최정근기자

## 평택시, '세교동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 평택지구대와 함께 보이스포싱 사고 피해 예방 홍보 활동 펼쳐'

세교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평택지구대와 함께 세교동 마을 정자, 공원 등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포싱 사고 피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평택지구대원들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폐쇄돼 지역 순찰을 병행하며 보이스포싱 사고 피해예방 홍보 전단지 및 부채 등을 배부했다. 아울러, 최신 보이스포싱 범행 수법, 대응 방법, 검거사례 등을 알리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활개를 치고 있는 보이스포싱 및 스미스포싱 사고 피해 근절을 위해 23개 읍면동에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민원실 홍보영상 상영,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세교동 행복마을관리소는 보이스포싱 사고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어르신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경각심을 일으켰다.

행복마을관리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 되어 어르신뿐 아니라 누구라도 범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의 재산피해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이 평택지구대의 협력으로 극대화되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지구대 및 지역단체와 연계해 주민의 재산과 생활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100% 보이스포싱!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포싱

- 본인인증·예금보통 등을 이유로 상불권(변호) 전송·현금인출·계좌이체 등 요구하는 경우
- 어플 설치·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경우
- 현금을 물품보관함이나 집 안에 보관하라는 경우
- 전화번호로 경찰관·은행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경우

경찰·검찰·금융원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수사, 예금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세요.

김남주기자

# 2021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pre-opening '복면끼왕 시즌2' 개최

## 참신한 끼를 가진 청소년 발굴 비대면 프로그램

(사)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가 2021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Untact pre-opening '복면끼왕 시즌 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pre-opening '복면끼왕 시즌 2'는 5월 22일 2021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식을 앞두고 끼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축제 방식을 벗어나 온라인(On-line) 경연으로 진행된다.

9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경연은 댄스, 힙합, 보컬, 연주 등 온라인 플랫폼(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영상(5분 이내 제한)을 오는 30일까지 (사)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동영상 5월 1일 (사)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며, 온라인 '좋아요와 댓글 수(60%)'와 전문 심사위원(30%) 및 미래위원회(10%)평가를 거쳐 5월 8일 오후 2시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부문에 관계없이 대상 1명(팀) 30만원, 최우수 1명(팀) 20만원, 우수 1명(팀) 1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상위 10명(팀)은 '복면끼왕 동아리'로 편성된다. 또한 '복면끼왕'에 참여해 응원한 청소년에게 추첨을 통한 시상도 이루어진다.

김영식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장은 "지나치게 이어 기획된 '복면끼왕 시즌 2'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에 제한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많은 청소년들의 시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연 수상자와 참여자 중 추첨에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5월 22일 내해출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 '들머리'를 통해 시상하게 된다.



최근수기자

# 양주시, 경기도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수도권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조치 시행

양주시는 경기도 3차 이전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수도권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권공사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 등에게 수도물 예상 사용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청사 건립 시 사전 납부가 원칙이다.

이에 시는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타시군과 차별화된 유치 당위성과 입지 타당성을 확보하기 공공기관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부담금 면제) 3항에 공공기관이 추가된 일부 개정 조례안은 3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21년 1월 25일~2월 23일)을 거쳐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기반을 갖

추는 등 이전 공공기관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유치 주력기관으로 결정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의 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GTX-C노선, 양주 테크노밸리 등 뛰어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양주시에 이번 3차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 안산시 제2호 예방접종센터 29일 개소...모의훈련 실시

안산시는 오는 29일 안산시 제2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에 앞서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시 제2호 예방접종센터는 갑골시민홀 920㎡에 마련됐으며, 전담시·군·경 공무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해 ▲백신준비 ▲에진표 작성 ▲에진·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방접종 확인증 발부 ▲응급 이송 절차 등 접종 메뉴얼에 따라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해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 상황을 가정해 관찰실에 있던 간호사가 이상반응 환자를 발견하고, 의사 호출 및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등 접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집중 훈련했으며, 평가위원(경기도2, 안산시1)이 참관하며 전 과정에 대해 컨설팅 했다.

안산시 제2호 예방접종센터는 공

무원을 비롯해 40명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하루 300명을 접종할 예정이다. 주말 접종은 의사가 확보 되는대로 운영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집단면역체계 구축과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회

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종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8일부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설치돼 운영 중인 제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하루 평균 600명에게 접종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오후 5시 기준 관내 1차 누적 접종자는 2만1천148명이다.

최정부기자



# 광명문화재단,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및 광명극장 개관식 성료

## 시민복합문화시설로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

(재)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여연선)이 22일 광명극장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식도 함께 이뤄진 개관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 문화예술단체 회원 단체, 광명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민들로 구성된 광명생활악기오케스트라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다소니 예술단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과 상설전시, 축하 이벤트도 동시에 이뤄졌다.

정식 개관식을 마친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광명극장은 정기 휴관일(매주 월·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된다. 운영시간 내 시민들은 센터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며 사실 전시 관람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 별도 대관 절차를 밟아 사전 사용 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청년 대상 '코로나를 이기는 문화기획 아카데미-청년 자생 학교'를 시작으로 향후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22일



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운영 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공모로 선정된 팀은 시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광명극장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양한 공연 레퍼토리를 활용해서 시민 앞에 선보일 계획이다. 시내 소재를 둔 전문 공연 단체가 광명극장 기획공연에 출연하며, 지난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모를 통해 공

연 단체를 확정한다. 지속적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들의 창작 발표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여연선 대표이사는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인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및 광명극장 개관식을 갖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연장을 가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특색을 가지고 광명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발전과 시민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순희기자

# 안양시, 계약심사제로 17억 예산절감 효과

안양시의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 효과노릇을 톡톡히 했다.

시는 23일 계약심사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17억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경기도 장려상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려 도시사표창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계약심사제도란 각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원가계산과 공사방법 등 과정 전반을 꼼꼼히 따져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과다집행을 차단해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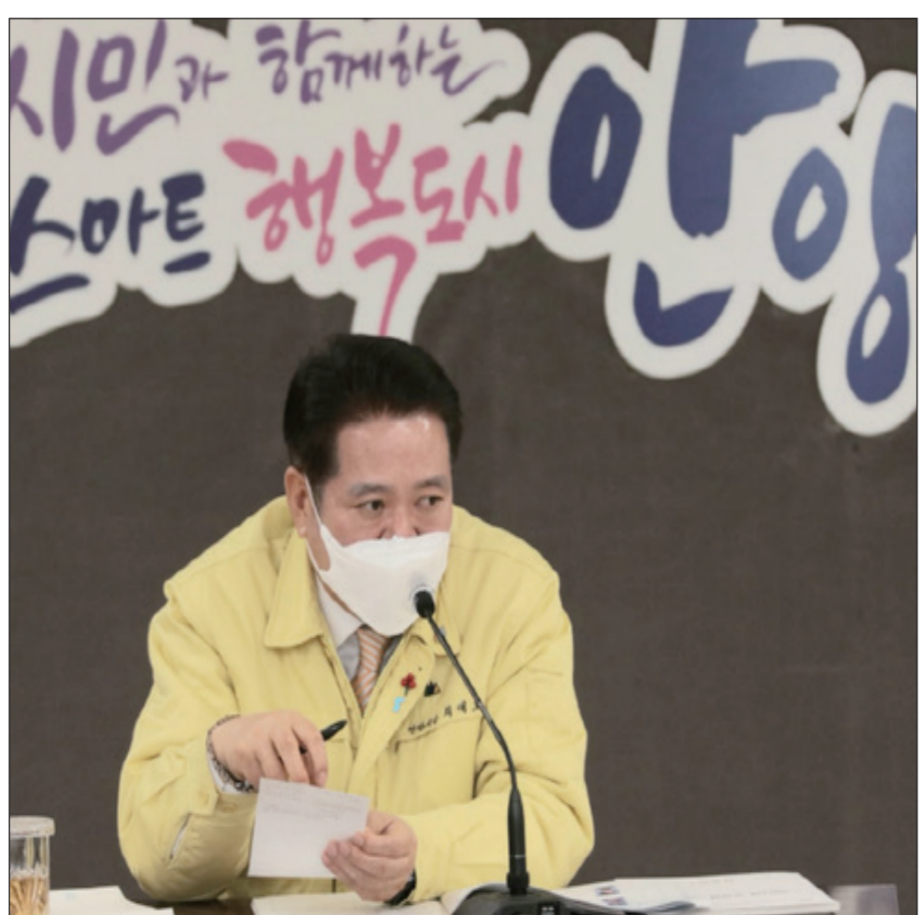
시는 공사 및 용역 등과 관련해 총 305건의 사전 계약심사를 실시, 예산 17억6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중 151건은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검토의견 제시, 사업비율 효과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적극행정은 경기도의 2020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해거로 이어졌다.

현재 시에서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천만 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 사전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사분야는 설계에 따른 계약심사, 시공 중 현장감사, 공사완



료 후 실태점검 등 총 3단계에 걸친 시스템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도 부응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의 건전재정 조성에 일조했다고 격려함과 아

울러,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원종균기자

# 동두천시, 2021년 1분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43가구 통합사례관리 선정

동두천시는 지난 22일 2021년 1분기 다양한 경로에 의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43가구를 통합사례관리를 선정했다.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절기 동안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비롯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추출가구 조사 등의 집중 활동을 통해 생활전반에 어려움이 확인된 취약가구를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복합적인 어려움이 확인된 시민들에게 통합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 가구별 특성과 복지요구에 맞는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적재적소에 연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까지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굴에 어려움이 많지만, 복지위기가구가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협력과 전략 마련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복지사각지대! 여러분이 찾아주시고 알려주세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란? (다양한 경로에 의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43가구를 통합사례관리 선정)

1. 노인, 취약 계층 등 사각지대,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공회 청산, 임대료 등 과다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3. 보육을 받을 신청 유망, 취업, 창업지원 등 필요인 가구
4. 가정폭력, 이혼유치 등에 노출되는 아동, 청소년, 노인 가구
5. 단친, 단수, 단 가족 등 고위험 취약계층 가구

**도움요청 및 제보방법?**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민참여단(안양시)에 전화로 연락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031-860-2362, 2363  
 생계팀 행정복지센터 031-860-3021  
 보건팀 행정복지센터 031-860-3039  
 고용팀 행정복지센터 031-860-3054  
 복지팀 행정복지센터 031-860-3078

**복지사각지대 지원 서비스**  
 복지 상담을 통해 공공기관(의료, 주거, 교육) 및 민간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란?**  
 지역 내 공공·민간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다중위험 가구 지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상담,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사업 모델

무안들봄

031-860-3102  
 031-860-3141  
 031-860-3163  
 031-860-3185

### 영양군보건소-경북대학교병원 찾아가는 통증 완화 전문 진료 실시

영양군은 전문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위해 경북대학교병원과 2015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 매년 3~4회 전문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전문 진료 일정이 전면 취소되었고 대도시 전문병원 방문이 더욱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4월 23일 전문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문진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 의료진이 송하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오랜 농사일로 관절통, 근육통 등 만성통증을 가진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료와 주사, 투약을 실시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3월부

터 2019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영양군을 방문하여 진료했으며 올해도 4월을 시작으로 5월, 7월, 11월에 전문진료를 시행하여 의료취약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경북대학교병원 전문진료는 통증의학과가 없는 영양군의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도움이 좋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인근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구미시, 국비(공모)사업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2021 정책기획 역량개발 교육 추진

#### 정부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우리시 시정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

구미시는 4. 22부터 구미시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에서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2021 정책기획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4.22 ~ 4.28 중 3일간 진행되며, 정부정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우리시 시정과 여건에 맞는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사업기획 등 실행기법을 학습함으로써 실무역량을 강화해 급변하는 행정트렌드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킨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전학습으로 공모사업 대응전략 및 국도비 확보방안 등에 대한 비대면(이러닝) 교육을 실시하고, 1일차에는 ▲ 정책목표, 전략, 지역비전 이해 ▲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도출 ▲ 정책분석과 평가방법의 이해 ▲ 정책과제설정과 사례연구, 2일차에는

▲성리학역사관 ▲에코랜드 ▲신라 불교조전지 등 관내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3일차에는 팀별 과제를 수행하며 사업기획 등 실행 기법을 학습한다.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은 '민선 7기 7개의 문제에 답을 찾자'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지역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교육하여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최근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 정책공모에서 기획 공모로 전환되고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주도 사업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국비사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지역과제 발굴로 구미가 새롭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영기/기자

###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교육사업 활발히 펼쳐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하선)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 상지여자중학교(교장 이일걸) 전교생 91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했으며, 21일 내서중학교(교장 김경택) 전교생 58명을 대상으로학년별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학교」는 MOU 체결 기관 7곳과 자원봉사 교육강사단이 운영하는 자원봉사 교육실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자원봉사 분야를 체험하는 교육이다.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은 자원봉사 의미, 활동 영역,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대해 자원봉사 교육강사단이 학년별 맞춤형 교

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찾아가는 자원봉사 학교」는 총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자원봉사교육강사단의 자원봉사 이해교육에 이어 경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천봉산요양원,한국교통대학교인협회 상주시지회 관계자가 노인,청소년,정신장애인,고통장애인 등 자원봉사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했다. 마지막으로 상주소방서,상주시의용소방대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정하선 센터장은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위해 함께해준 협약기관과 자원봉사 교육강사단, 열정적으로 체험에 임해준 학생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식/기자

## 경북도, 수출일상화사업으로 수출현장과 소통하다.

경상북도 호찌민 대표사무소(소장 안상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지원 일상화'사업으로 베트남 시장 수출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출지원 일상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제한의 장기화로 출장이 불가능한 도내 중소 수출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경상북도 호찌민 대표사무소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하여 비대면 상담회 개최, 수출제품 체험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와 시장반응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수시 비대면 상담회로 도내 화장품 수출기업 5개사와 현지 바이어 3개사가 줌(ZOOM) 화상상담회를 가졌다. 금년부터 베트남의 화장품 관세가 5%로 인하되

어 화장품업체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에 참가한 바이어 중 1개사는 현지에서 화장품 브랜드 3개를 취급하고 있는 잠재력 있는 바이어로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상담회에 이어 즉시 샘플을 제공하는 등 매우 만족하는 성과를 올렸다.

호찌민 대표사무소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1건의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준비하여 추진 중에 있다. 4월 상담회에서는 도내 수출기업 3개사와 베트남 바이어 2개사가 참가하여 비대면 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출지원 일상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업은 수출상품의 체험을 통한 마케팅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표사무소의 전시제품을 잘 활용하여 1단계로 방문객 대상 체험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표사무소에서는 호찌민에 소재한 유관기관에 홍보한

결과, 샘플제품 구매문의가 있어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미 베트남시장에 진출하여 판매되고 있는 수출제품에 대하여 제품구매를 유도해 마케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추후 예산을 투입하여 50~70명의 체험단을 모집·구성하여 경북도의 화장품이나 소비재 이용 체험을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시장반응 등을 파악하여 마케팅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지 수출 지원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경북도 호찌민 대표사무소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발로 뛰는 현장활동으로 대표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경북도 호찌민 대표사무소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2017년 호찌민에

비영리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개척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를 베트남에 적극 알리고 한-베트남 경제와 문화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문경시, 점촌 원도심 5월 가정의달 맞아“경품 타 봄”이벤트 열어

문경시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점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장경매바우처지원사업으로 경품행사를 문경중앙시장, 점촌역전상점가, 행복상점가에서 일제히 진행한다.

문경중앙시장은 '봄봄봄 봄이왔어요 문경중앙시장 경품타봄'이라는 주제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間に 걸쳐 1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경품권과 홍보물품(카드티슈)을 증정하고, 주점을 통해 양문형 김치냉장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품을 지급해 소비자에게 감사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촌역전상점가는 '인생 역전 경품타봄', 행복상점가는 '소소한 행복 경품타봄'이라는 주제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 행사를 진행한다. 중앙시장과는 달리 1만원이상 구매고객들은 카드(현금)영수증에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해 경

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으며, 65인치 UHD TV를 비롯한 각종 경품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경품추첨행사는 모두 실시간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며, 추첨당일 행사장 방문객의 체온체크 및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행사기간동안 전 상점과 응모할 주변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코로나19 방역 방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유한 문경시장은 "5월 감사의달을 맞이하여 경품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점촌 원도심 상권이 고객과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식/기자

## 김천시 산모와 아기돌봄으로 행복! 시민 헬스케어로 또한번 행복!

김천시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극복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미래 100년 해피투게더 김천' 실현을 위하여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진행 중이며 이와 더불어 초기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아기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엄마와 아이는 물론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2021년에도 저출산 극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산장려금 33억4천만원, 산모·아기 돌봄 사업에 24억2천만원 등 총 96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0.92 보다 0.35%가 높은 1.27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0년 김천시 출생아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838명이 태어났다.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관리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비대면 건강진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21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운영 중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휴대전화와 손목 활동량계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모니터링 및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참여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 유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천시가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질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기준(혈압, 공복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에 따른 건강위험 요인이 많

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중이다.

참여자들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코디네이터로 이루어진 사업팀의 전문상담 및 개별 건강관리 방법을 지도받고, 손목 활동량계와 전용 앱을 이용하여 상시 운동기록 측정, 건강일지 기록, 비대면 운동 콘텐츠 등을 통해 24시간 체계적인 건강 생활 습관 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천시는 지역사회 걷기 분위기 조성 및 걷기 실천을 제고를 통한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7월 앱 도입 이후 현재 3,400여 명의 시민이 가입하여 매일 걷기 챌린지에 참여 중이며, 목표 걸음 달성에 따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걷기 생활화 습관 형성에 힘쓰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신청 및 워크온 문의는 김천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실로 하면 된다.

김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속적인 시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세는 집콕 운동'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운동 콘텐츠를 제공, 대상자의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 지속가능한 건강생활 실천 습관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영양관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식단 조절에 대한 상담 등 대상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랜선 비만예방 운동교실'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요가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에게 요가매트 등 운동기구를 제공하고 전문강사의 실시간 자세교정 등 피드백을 제공하여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비대면 운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관리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건소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고,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절벽시대에 걱정없이 아이 낳는 김천,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김천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김세기/기자





# 거창군 어린이 날은 목공집콕, 목공체험꾸러미 배달

### 마음전달 박스 만들기 통해 가족의 사랑 나눠요!

거창군은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만 7세~12세)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목공체험꾸러미는 가정에서 목공을 즐길 수 있는 '나무 서랍형 수납 박스 만들기' 키트와 가족끼리 진지하고 솔직한 내용의 대화를 도와주는 대화카드 놀이 방법을 제공하는 키트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선정된 가정에 체험키트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목공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지도 동영상 제작하여 제공한다. 체험키트는 작품료 택배비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김종원 목재문화진흥회장은 "어린이들이 목재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목공체험과 대화카드 놀이로 가족 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수납 박스를 만드는 즐거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못했던 체험학습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목공체험꾸러미 배달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목재문화진흥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선착순 100명을 선정하여 오는 4월 28일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 후기를 작성한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목재문화진흥회에서 특별한 선물도 제공한다.

최광용/기자



# 창원시, 창원의읍면동 소개한 '58열전' 발행

### 2년 6개월간 연재한 기획보도 묶어 책으로 제작

창원시는 2018년 5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언론사를 대상으로 연재했던 기획보도 '창원58열전'을 묶어 책으로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58열전'은 시 공보관에서 관내 읍면동의 면면을 소개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각 읍면동의 역사와 문화, 명소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58열전이라는 제목은 창원의 58개 읍면동을 뜻한다. 지난해 1월 1일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마산합포구 교방·노산동→교방동, 진해구 중앙·태평·충무동→충무동)에 따라 읍면동 수가 55개로 줄었으나 전체 연재 편수가 58편이기에 제목을 그대로 뒀다. 분량은 246쪽이며, 이를

를 돕기 위해 각 지역별 지도를 첨부했다.

시는 책을 400권 발행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구별 도서관, 관광안내소, 진해해양공원과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등 관광지에 배부했다. 미디어플러스창원 사이트에서 e-book(창원데이트-문화관광-창원58열전)으로 볼 수도 있다.

정민호 공보관은 "내 고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창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창원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창녕군 청년 월세, 창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창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한정우 군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두 번의 모집을 거쳐 34명이 신청해 22명이 선정됐으나 사복과 등의 이유로 부적격자가 발생해 25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또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감안해 대상

자 적격 여부 검토 기준일을 공고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해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사업참여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창녕군 거주 만19~39세 이하이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세대주인 청년이며 매월 최대 15만원 월세를 8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은 5월 7일까지 창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다운로드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접수하거나 군청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남궁영기자

# 남해군 소식지 '사랑해요, 보물섬' 봄호 발간

남해군 소식지 '사랑해요, 보물섬' 봄호가 발간됐다. 총 1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번 호는 표지를 포함해 52쪽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집 지면에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 결과를 비롯해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추진해왔던 성과와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남해군의 발전방향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에 대한 궁금점도 Q&A(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다뤘는데 남해-여수 해저터널, 어떤 사업인가? 기대효과는요?, 교량을 건설하지 않고 왜 터널인가?, 전파는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소통 지면에는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핫플레이스를 배경으로 셀프 웨딩촬영을 하고 지난 3월에 결혼식을 올린 장성호(35)·임다혜

(33) 씨 부부를 소개했다.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만나 남해를 함께 여행하고 이제는 남해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또 가족관계 등록서류 자동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해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민원서비스를 개선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김민석(27) 주무관의 소식을 비롯해 오랜 준비 끝에 창립하게 된 남해군장애인체육회, 남해각 임시개관,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뮤지엄 남해&동창선 아티스테이 개관 등 다양한 소식을 이번 호에 실었다.

이번 호는 총 1만부가 발행됐다. 군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불호를 배부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우편 수령을 희망할 경우 남해군 홍보팀에 신청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그동안 발행된 소식지는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훈기자



# 산청농기센터 지식재산 활용 농축산업 육성 박차

산청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0여년 간 꾸준히 출원·등록해 온 특허와 상표등록 등을 활용해 지역 농축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군농기센터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농축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와 지리적표시단체,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 등의 지식재산 활용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1년 4월 현재 산청군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내 농축산물 생산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한돈 발효햄 제조방법'과 '성형틀의 분리와 균일한 제조가 가능한 딸기빵 제조장치' 등 모두 6건이다.

상표등록은 모두 40건으로 '가공도시락비빔밥(산청취반)'과 '딸기빵(딸기쥬)', '산청산돼지' 등이 출원·등록돼 있다.

이외에도 산청유기농한우영조합법인이 '산청한우'를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 마쳤으며, 산청군농업기술센터가 포장용라벨을 디자인 등록해 산청군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군농기센터는 지역농가와 꾸준히 협업과 소통을 추진해 온 결과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특허 가운데 한돈 발효햄 제조방법(헛개, 우슬, 박하 포함), 유향급여 무항생제 안전돈육 생산방법 등은 산청군의 주요 축산물인 돼지고기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것이다.



또 강원장 및 제조방법, 성형틀의 분리와 균일한 제조가 가능한 딸기빵 제조장치 등은 군과 농가가 현장 조사는 물론 각종 연구실험을 통해 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모델화해 특허 출원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또 산청 취나물을 활용한 산청취반, 산청 딸기를 활용한 딸기쥬(딸기빵), 산청흑돼지를 활용한 산청산돼지 등 총40건의 상표등록 상품을 출원하는 등 특색 있는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광용기자

이재근 산청군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우리 산청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큰 원동력"이라며 "산청 먹거리는 산청군이 책임지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농축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 농축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산청만이 해낼 수 있는 농축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안군은 '5년 후 10년 후'함안발전 비전 중 농업분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과 농촌어르신인 상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농산물 융복합 제품인 콩고기 체험키트 활용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밝혔다.

콩고기 체험키트는 2021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군에서 개발했으며, 함안군농부협동조합과 연계한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 체험활동 강화와 농산물 융복합 제품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함안군에서 생산된 콩과 참깨, 들깨, 양파, 마늘 등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개발된 밀키트 형식의 이번 체험키트는 별도의 추가재료 없이 모든 식재료가 포함되어 있어 가정에서 손쉽게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먹거리 체험키트이다.

최광용기자

# 함안군, 농산물 융복합 제품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려운 상황에 가족들과 함께 실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도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함안농부협동조합 박재민 대표와 소통을 통하여

해결하는 등 프로그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향후에 함안군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비대면 융복합 제품 체험키트 3종을 추가 개발하여 다양한 체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훈기자

함안군에서 생산된 콩과 참깨, 들깨, 양파, 마늘 등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개발된 밀키트 형식의 이번 체험키트는 별도의 추가재료 없이 모든 식재료가 포함되어 있어 가정에서 손쉽게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먹거리 체험키트이다.

군은 4월 26일부터 함안농부협동조합 "별별농부" 온라인쇼핑몰에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콩고기 체험키트를 할인 판매하고, 체험키트를 5월 3일 일괄 배송할 예정이다.

체험 방법은 함안농부협동조합에서 미리 제작한 체험 프로그램 동영상 보면서 함께 따라 만들 수 있는 언택트 방식의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

려운 상황에 가족들과 함께 실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도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함안농부협동조합 박재민 대표와 소통을 통하여

해결하는 등 프로그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향후에 함안군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비대면 융복합 제품 체험키트 3종을 추가 개발하여 다양한 체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훈기자





# 해남군, 민선7기 공약추진율 91.5% '착착'

### 군정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 주요사업 연내 완료 목표 박차

해남군 민선 7기 공약사업이 91.5%의 추진율을 보이며,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은 명현관 해남군수 취임과 함께 민선7기 '빛나라 땅끝, 다시뛰는 해남'을 비전으로 5대전략 65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해 공약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점검 결과 46개 사업은 이행이 완료됐으며, 19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90% 넘는 추진율을 보이며 높은 추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5대분야 중 현장중심 소통행정에는 공평·공정·공개 3원칙의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청렴도 향상,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 군민배심원제 도입,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강화 등이 완료됐다.

살기 좋은 부자농촌분야는 전국최초 농민수당 지원,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확대,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산림소득 증대 사업 등이다. 체류하는 문화관광을 위해 농수산



물 먹거리 축제인 해남미남축제 개발, 공동화석지 활성화, 체류형 산림치유프로그램 확대 등이 추진됐다. 생동하는 지역경제 분야로는 전남 최대 규모 지역상품관 발행,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경제 활성화, 노후상수관망 정비와 맑은 물 공급 확대 등 사업이 성공리에 이행됐다. 갑동주는 맞춤형지역에는 남도광역추모공원 명품화 사업, 양질의 노인

일자리 지원 강화, 1,000원 군내버스 요금제 도입,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1,000원 택시), 보훈회관·노인회관 신축 등이 포함됐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청소년북합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 청년센터가 올해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이며,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세계 땅끝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 간척지 첨단 농

업단지 조성,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등 주요 공약 사업들도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7기 3년차를 맞는 올해 중 주요 공약사업들을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이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추진 성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7기 출범 당시 군민과의 약속을 뼈집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올해는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만큼 군민들이 군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군민이 신뢰하는 해남, 윤택하고 살맛나는 해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한국마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19~2020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는 등 민선 7기 가장 모범적인 공약이행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양영욱/기자

# 곡성군, 교육이 인구감소 해결책, 곡성군이 옳았다

교육을 인구 감소 대책의 하나로 내세운 곡성군의 선택이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은 최근 '2020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전남 곡성군은 1.65를 기록하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2위를 기록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최근 자주 사용되는 지방소멸 위험 지수에 대한 비판에서 만들어졌다. 지방소멸 지수가 일본의 인구 구조 실정에 맞춰 고안된 것인만큼 40~50대 연령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수만이 아니라 출생, 사망, 전출입 등 인구의 동태적 특성과 그 원인을 파악해 인구감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15~49세 여성인구 중 둘째 이상 아이를 낳은 비율을 측정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비율을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지수 값이 1 이상이면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구감소 대안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주장한다. 농촌지역이 출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은 양육과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이탈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감소 해결책도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같은 결과는 곡성군이 인구감소 대책의 하나로 교육을 핵심 시책으로 삼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민선 7기 들어 곡성군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생태계 조성, 숲 교육, 예술교육, 4차 산업 교육 등 창의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교육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며, 특색 있는 교육으로 도시 아이들이 지역을 찾게 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한 발 나아가 지난해 곡성군은 교육청, 민간과 함께 지역 교육을 전담할 미래교육재단을 출범시켰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구를 만들어 지역교육을 지속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재단 출범으로 곡성군은 교육을 통한 인구 유출 감소는 물론 인구 유입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4가구 8명이 서울에서 곡성군으로 농촌유학을 온 것이 대표적이다.

곡성군은 재단을 통해 아이들 뿐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배우는 것을 즐겨워하는 학습 중심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강사로 양성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이 인구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조금씩 증명되고 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남출/최상홍/기자

# 화순백신산업특구, 바이오 기업 투자 활기

코로나19 임상시험용 백신을 위탁 생산해 주목받고 있는 화순백신산업특구에 바이오 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화순군은 22일 최근 ㈜박셀바이오(공동대표 이준행·이재중)와 화순백신산업특구 생물약산업단지 1만 3352㎡ 규모의 공장 용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화순군, 전라남도, 박셀바이오는 300억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박셀바이오는 2023년까지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첨단 연구 설비, 면역치료제 스마트 생산 시설을 갖춘 중앙연구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중앙연구소를 완공하면, 기초 연구부터 임상 설계, 임상 시험, 치료제 대량 생산, 품질관리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항암 면역치료제 생태계'를 완성하게 된다.

박셀바이오는 치료제 연구 후 제품 생산과 임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는 달리 창업 초기인 2012년부터 기초 연구에서 치료제 생산에 이르는 일괄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체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박셀바이오가 중앙연구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개별 암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포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준행 박셀바이오 공동대표는 "중앙연구소를 건립해 글로벌 항암 면역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시장 선도자로 성장하고 치료제 개발, 임상, 생산에 이르는 항암 치료 토탈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신기술 조기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과 전략적 투자 등 공격적인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 전남교육청, 책 드림! 꽃 드림!

영광공공도서관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정체되었던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3일 '책 드림, 꽃 드림' 행사를 운영했다.

1995년 유네스코는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자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까탈루냐 지방 축제인 '세인트 조지의 날'에서 유래했다.

영광공공도서관은 4월 23일 당일 도서 대출자 선착순 50명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증정하는 '책 드림, 꽃 드림' 행사를 진행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세계 책의 날을 알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책과 독서의 즐거움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영안/기자



# 무안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결의대회 가져

무안군은 22일 무안군청 광장에서 어업인 단체에서 주최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김산 군수를 비롯한 목포수협 관계자, 어업인 등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며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지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한 어민은 "오랜 기간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해왔는데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낚시, 생선 등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촌이 황폐화될까봐 걱정이다"며 "정부는 어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전규 수산산업경영인무안군협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오염수가 바다에 배출되면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수산물이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라갈 것이다"며 "일본 정부는 어업인의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완범 목포수협 어촌계장 총



연합회 회장은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속이고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란 핵 테러를 감행하려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결정이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되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전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다"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양영욱/기자

# 광주소방, 폐방화복으로 암투병 소방관 지원한다

지난해 119REO(주)와 지난해 폐방화복 재활용 업무협약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방화복이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해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119REO(주)와 손잡고 폐방화복을 재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제작·판매해 수익금 50%를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 암 투병 소방관을 후원한다.

119REO(주)는 폐방화복과 소방호수를 재활용해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수익의 50%를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 소방관을 후원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본부 단위로 처음으로 지난해 11월12일 119REO(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폐방화복을 무상으로 양여기로 하고 방화복 250벌을 제공했다.

방화복 한벌은 36조각으로 분해돼 가방, 카드지갑, 팔찌 등 40종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폐방화복으로 제작된 가방과 액세서리 등 제품은 5월16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서 특별기획전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1층 기념품 판매점에서도 폐방화복으로 제작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준 방화복이 함께 현장을 누빈 암 투병 소방관들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됐다"며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뿐인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욱/기자

# 류태호 태백시장, 태백시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하는 탄탄데이트

류태호 태백시장은 23일 16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태백시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하는 공감토크, 제3회 탄탄데이트를 진행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간 결속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마을자치의 실현, 주민화합 및 발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시는 자율 주도적으로 마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마을 대소사 참여 및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 화합 및 지역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는 주민자치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3회 탄탄데이트의 주인공으로 태백시 주민자치협의회를 선정했다.

이날 탄탄데이트에는 류태호 태백시장, 양범모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회장 및 사무국장,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건의사항과 시정 질의 응답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부영아파트 입주시 교통 대책 마련, 타워브리지 조기 착공, 주민자치 역량교육 기회 확대, 시유 농산물판매센터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제공, 영세상인 식

당 칸막이 설치 지원, 주민자치위원 지방신문 구독 지원, 주민자치위원 수당 현실화, 동점산업단지 입주 현황 및 티타늄 광택 개발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명실상

부하게 지역 살림도 살고 갖가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올해는 시 승격 40주년이자, 최초 석탄이 발견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 동안 석탄으로 먹고 살던 시기는 지나고,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범모 태백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코로나 19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온 세계의 문제인 것 같다. 그 와중에 가장 안전한 곳이 우리 태백이다”라며, “안전한 태백이 되도록 방역 일선에서 전두지휘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들이 터놓고 하고싶은 얘기, 요구사항 등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횡성군,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성과 방문 점검 펼쳐

횡성군은 지난 22일, 국공립 어린이집인 ‘큰빛 어린이집’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한 후 방문 점검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란 한국판 뉴딜사업의 세 개의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린 뉴딜은 녹색성장을 기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군은 뉴딜사업 그린 리모델링의 첫 결실인 공립 ‘큰빛 어린이집’의 방문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어린이 보육환경을 살피고 군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국도비 290백만원을 포

함, 총 사업비 366백 만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지난 4월 12일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정동희기자



#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위해 정선군·아리랑국제방송 간 업무 협약 체결

정선군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리랑국제방송과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모든 아리랑의 시원인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재확인시키고 문화·예술자원의 중심으로 아리랑국제방송과 함께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내용은 정선아리랑 관련 공동 영상·음원·교육 등 콘텐츠개발 및 방송활용, 정선아리랑의 가치확산, 정선아리랑 및 문화예술 세계화를 위한 각종 정보 교환 등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선군에서는 국내외 아리랑 전파 및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밀양시, 진도군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약체”구성 및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승준 군수는 “아리랑은 한민족이 겪은 고난과 극복의 노래이며 세계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아리랑을 브랜드화하여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하여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기반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리랑국제방송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역사·관광 등 한국문화 홍보를 대표하는 글로벌 방송사로서 정선아리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 속초시 갯배St'개장 1년, 청년 창업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 개장 1주년 기념 '1st Happy Birthday' 행사 실시

과거 속초경제의 중심이었던 구 속초수협역의 역사성을 살려 지난해 4월 힘차게 닦아 올린 속초 청년몰 '갯배St'가 개장 1주년을 맞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한 청년몰 '갯배St'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년상인들의 열정으로 20개 점포 모두 정상영업 중으로 청년 창업의 성공 모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민자 유치를 통해 청년몰 2층에 개장한 스타리안은 문화해택이 부족한 지역에 선진화된 문화·여가 여건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행정과 민간 그리고 청년상인이 서로 상생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최근에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SNS채널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핫플레이스 연계 패키지 상품개발 및 청년 감성을 살린 수제 맥주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몰이 속초의 주요 관광지와 주변 상권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 창업과 관광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속초 청년몰 '갯배St'는 지난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개장 1주년 맞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다양한 감사 이벤트를 제공하는 '갯배St 1st Happy Birthday'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청년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기념이 될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남길 수 있도록 루프탑에 설악·금강대교를 배경으로 한 '셀프스튜디오'와 청년몰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SNS에 찍은 사진을 인증할 시 주점을 통해 '에어팟'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생일을 맞은 고객에게는 속초를 즐길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숙박권 또는 서핑강습 이용권을 증정하며, 청년몰에서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진엽서 인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밖에 1주년을 기념하는 먹거리로는 '9,900원 무제한 생맥주'와 '오

천원의 행복안주'를 준비하며, 방문객들이 즐길 게임으로 다양한 보드게임을 대여하고 팍팍따기, 제기차기 등 '뉴트로 감성 게임' 또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상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1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청년몰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하였고, 1년 동안 갯배St를 성원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청년몰 '갯배St'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퇴계교~효자교 산책로에 “문화예술 놀이터” 생긴다 도시활력 프로젝트 '춘천놀이 봄·여름' 개최

## 코로나 블루(Blue)의 전환, 코로나 그린(Green)!

춘천문화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대에서 만나는 즐거운 상상 '춘천놀이 봄·여름' 프로젝트를 오는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 간 수변산책로 및 춘천시청 광장 등에서 개최한다.

'춘천놀이'는 일상의 공간(산책로, 골목길, 공터, 교외 등)에서 우연히 만나는 작은 활동으로 이웃들과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고 개인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사계절 문화예술 놀이 프로젝트이다. 신중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하여 코로나 우울(Corona Blue) 현상을 겪는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야외에서 일어나는 작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코로나 그린(Corona Green)'으로 일상을 전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젝트 메인 장소인 공지천(퇴계교~남춘천교~효자교 구간) 산책로변 유휴공간에는 상호지지와 관계를 상징하는 시민참여형 구조물과 모듈 쉼터,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지역 작가의 작품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완성작품을 설치하여 시민이 관람하는 형태가 아닌 시민참여로 작품이 완성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춘천시청 광장과 (사)춘천마임축제에서 운영하는 대학로 문화의 거리에는 하천변에 설치되는 작품 일부를 설치하여 도시 전체가 하나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춘천놀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사전접수를 통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신나는 오케스트라 공연, 어

린이 통합예술교육 놀이수업 체험 등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채워질 예정이다.

'춘천놀이 봄·여름' 프로젝트는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 사전신청, 산책로 출입구 기본 방역, 프로그램별 발열 체크 후 입장 발찌 제공 및 착용, 프로그램별 수시 방역, 야외공연 및 활동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식·음료 부스 미설치 등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문화재단 최돈선 이사장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인 5월, 일상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담당자는 “안전한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참여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산책하는 시민들께서는 기본 방역이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당부 말씀을 전달했다.

'춘천놀이 봄·여름'에 이어 하반기에 개최될 '춘천놀이 가을·겨울' 프로젝트는 도심을 벗어난 읍·면 지역 등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사항은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춘천놀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 사전신청은 춘천놀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춘천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은/기자



# 동해시·강원대학교·동해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장애아동 특수교육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해시 복지과·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동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순영) 통합발달센터는 지난 21일 발달장애 아동 조기 특수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은 동해시 지역의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발달 지연 조기 발견과 시기적절한 관리 및 치료지원을 통해 2차 장애 예방과 돌봄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작업치료프로그램 개발 ▲작업치료 사업 진행 및 기술지도와 자문활동 ▲학생 현장실습 협조 ▲연구인력·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과 보급 등이다



서순영 동해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발달장애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치료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과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 통합발달센터는 장애아동 40여명을 대상으로 감각인 지언어, 감각미술, 감각통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 안정화 강화, 2차 장애 예방 등으로 장애아 양육 가정의 큰 효능을 얻고 있다.

이등원/기자



### 허성무 시장, 창원시불교연합회 회장 취임식 참석

부처님의 자비로 시민이 행복한 창원시 축원

허성무 창원시장은 22일 오후 5시 창원시불교연합회 제6대 회장 정인스님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과 행사 축소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6대 정인스님의 약력소개, 회장 추대, 취임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시불교연합회는 2010년 창원, 마산, 진해불교연합회 통합으로 설립됐으며, 회장 임기는 2년이며, 제1대 지태스님(봉원사), 2대 원행스님(정인사), 3,4대 도홍스님(불국

사), 5대 월도스님(삼학사)이 역임했다.

허성무 시장은 “월도스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제6대 회장 정인스님의 취임으로 지속적인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주시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축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하며, 창원시 불교문화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 주)브릿지웨이, 광주시에 덴탈마스크 20만장

㈜브릿지웨이 박준영 대표는 지난 21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덴탈마스크 20만장(4천6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마스크 기부는 박 대표의 아버지인 ㈜동우마블 박근관 대표와 문형2리 이상혁 이장의 나눔 문화 전파로 성사됐다.

박 대표는 “이번의 기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를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받은 마스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브릿지웨이는 지난 2020년 설립된 마스크 제조 회사로 오폭음 추자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최근수기자



### 파주시 금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전달

파주시 금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 직접 만든 카네이션 200개를 기부했다.

함현주 위원은 “2021년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돼 카네이션을 만들어 기부하게 됐다”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성껏 만든 카네이션이 지역 어르신들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부의사를 전했다.

이창우 금촌3동장은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단 하루의 일정이지만 소중한 기부를 통해 어르신들께 정과 추억을 나누어 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라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관계가 더욱 단절되고 있는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촌3동은 이날 기부 받은 카네이션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전달할 계획이다.

한영기기자



# 천안천성중, “이봉주 선배님, 힘내세요!”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과 천성중학교, 이봉주 선수 응원 릴레이 캠페인 진행

천성중학교 학생들이 근육긴장이 상증을 앓고 있는 천성중 졸업생 이봉주 선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2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릴레이 도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 천성중학교 재학생들이 이봉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원성천 일대를 매주 토요일마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 활동’을 릴레이로 펼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시작해 천성중학교를 지나 원성천 일대를 2시간 동안 돌며 원성천 주변 쓰레기들을 줍고, 활동 마무리에 ‘이봉주선배님 응원합니다’, ‘릴레이응원캠페인’, ‘이봉주따라 걷기’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개인

SNS에 올리게 된다.

이봉주 선수는 응원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후배들의 이번 캠페인활동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감동받았다”고 전하며, “활동하면서 다치지 않게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송재열 천안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선배님을 응원하는 마음과 플로깅 활동으로 환경까지 지키려는 천성중 청소년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수련활동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 (주)우진인더스트리얼 김정태 대표, 태안군 안면읍에 1000만원 기부

충남 태안군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안면읍 행복한 기부’에 (주)우진인더스트리얼 대표 김정태 씨가 지난 21일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안면읍 7개 초중고교의 우수인재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정태 대표는 “고향의 지역 후배

들이 도전과 열정으로 각자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길 바라며 이 장학금이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태 대표는 작년 1월에도 안면읍 행복한 기부에 1,000만 원을 기탁한 바가 있다.

최재은기자



## (주)엠텍, 김천상무에 후원금 2천만원 전달

김천상무를 향한 후원이 계속되고 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22일 오후 3시 김천시청 접견실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주)엠텍은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김천상무의 발전을 위해 2천만원을 후원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주)엠텍 김무영 대표를 비롯해 구단주 김충섭 김천시장, 최한동 후원회장이 참석했다.

(주)엠텍은 구미시 옥계2공단로에 위치한 휴대폰 내·외부 부품(삼성 갤럭시) 생산 회사다. 종사자는 1,000명에 이르며 매출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베트남 박닌성 연풍공업단지에 해외 공장까지 보유하고 있다.

김천상무의 발전을 위해 2천만원을 기부한 (주)엠텍 김무영 대표는 1억 원 이상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을 이어가고 있는 김무영 대표는 김천시내 프로축구단 창단 소식을 접할 때부터 후원을 계획했다.

김무영 대표는 “고향인 김천에 프로축구단이 생겨 정말 반갑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프로축구단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단 후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케팅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세기기자



## 안동시, 애명다운빌 오승택 원장 “제41회 장애인の日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



안동시 북후면 소재 애명다운빌의 오승택 원장은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오승택 원장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애명다운빌 원장과 경복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으로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차별해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을 기념하여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포상하고 있다. 오승택 원장은 이번 수상에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경상북도 자랑스러운 도민상 특별상 사회복지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세기기자

##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원, 뉴스파일, 교통교육복지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시민과의 소통

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의정 혁신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시흥시, 시흥갯골축제의 미래를 보다

시흥시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시흥갯골축제와 한국축제감독회 공동주최로 '코로나 시대 축제를 준비하는 600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시대에 어떻게 축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의 모색과 도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제 축제현장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감독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2021년 축제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코로나19 시대, 축제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성찰부터 축제의 지속가능성까지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 진행은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회 회장, 조영선 문화기획 아로리 대표가 맡는다.

포럼 첫날인 4월 28일은 도시문화형 축제라는 주제로 주제연 공중문화 축전 감독, 조정국 관악강감찬 축제 감독, 류재현 아트프라이

즈 강남 감독이 출연한다.

4월 29일 공연예술형 축제의 라인업으로는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 손재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예술감독, 인제진 가평자라섬재스페스티벌 감독이 출연한다.

마지막 날인 4월 30일에 최윤현 시흥갯골축제 감독, 이재관 와우북페스티벌 감독, 이재원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감독이 출연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시흥갯골축제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흥갯골축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참가 사전신청은 시흥갯골축제 홈페이지에서 4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축제 관련 종사자나 축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수/기자



# 도봉구, 가정의 달 맞아 5월 1일 '자동차 극장' 운영

도봉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동차 극장을 마련했다.

도봉 자동차 극장은 자가용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행사다. 작년만 해도 2번이나 실시해 코로나19로 영화관을 찾지 못한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자동차 극장은 5월 1일(토) 덕성여자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영화는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사전 이벤트와 문화공연에 이어 상영되며,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입장할 수 있다. 단, 혼잡방지와 차간 거리를 위해 차량은 300여 대로 제한하며,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상영될 영화는 전체관람가 애니메이션 온 워드: 단 하루의 기적이다. 2020년 6월 개봉한 이 영화는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두 형제의 모험을 그렸다. 가정의 달이니만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영화다.

영화 상연 전 LED트론댄스 공연과 레이저 그래픽쇼도 준비했다. 싸이와 마이클잭슨의 음악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LED트론댄스와 레이저 그래픽쇼는 주말 저녁의 흥취를 돋우고, 공연 관람의 갈증이 컸던 관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 영화 상영에 앞서 진행되는 이벤트 퀴즈를 통해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주식회사 버니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후원을 받은 소정의 경품도 증정한다.

모든 공연 및 상영은 방역수칙을 지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탑승자 전원은 입장 전 열 체크를 반드시 하고, 전자출입명부(QR)를 작성해야 한다. 극장은 상영 전후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여분의 손소독제와 마스크도 비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가정의 달, 가족들과 함께 차에서 영화를 보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공연과 영화가 그간 코로나19로 공연장과 영화관을 찾지 못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 남양주시, '2021년 남양주시 도서' 선정

남양주시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시민의 추천을 받은 도서를 '2021년 남양주시 도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남양주시 도서' 선정을 위한 시민추천 도서공모 이벤트를 진행, 시민 316명의 추천을 받은 도서를 대상으로 1차, 2차 도서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분야별 최종 도서를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는 어린이 분야 "짱 없는 뽑기 기계(곽유진)", 청소년 분야 "달리구트 꿈 백화점(이미예)", 성인 분야 "시선으로부터.(정세랑)"로 총 3권이다.

도서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린이 동화이지만 어른들의 마음도 요동치게 하는 이야기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짱 없는 뽑기 기계)', '잠을 자며 꿈을 꾸는 시간은 쓸모없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다.(달리구트 꿈 백화점)',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낸 이야기가 좋습니다.(시선으로부터,)' 등을 추천이유로 밝혔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딩페인(Reading Campaign), 코로나블루 BOOK-백신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첫 번째 행사인 도서공모에 이어 낭독챌린지, 독후감공모전, 북살롱 등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연이어 운영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 '서구에서 놀아보자' 인천 서구문화재단, 공간·문화다양성·청년을 주제로 이야기할 참여자 모집

서구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단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주민이 모여 교류하는 '서구에서 놀아보자'프로젝트의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문화공간, 문화다양성, 청년문제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모임을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그룹별로 5회의 소통 워크숍에 참여하고 2주간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며, 월 최대2회 회의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추진단은 서구 주민이 공통의 관심사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민이 주도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를 향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모집은 모임당 최대 15명으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각 주제에 관심이 있는 서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모임 활동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 지역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며 "어려운 형태가 아닌 자연스러운 지역 주민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구에서 놀아보자'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문화도시추진단SNS 및 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남/기자



# 아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친근한 콘텐츠로 색다른 재미 선사

아산시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최근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공개하며 온라인상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 아산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슬기로운 아산생활', 시장이 직접 민원에 대해 답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양한 정보들을 요약 제공하는 '아산이 TOP좋다' 등 다양한 컨셉의 3~5분 길이 영상을 올리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쉽고 재밌게 만들어졌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산시 유튜브 채널 콘텐츠들은 홍보담당관 시민소통팀이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자체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며, 딱딱한 시정 소식을 재밌고 유쾌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훈 홍보담당관은 "기존의 정형화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들이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채널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

텐츠를 통해 비대면 소통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하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첫 시도

(재)하남문화재단은 오는 5월 5일까지 '그림책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교육활동가를 희망하는 하남 시민 30명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교육은 5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주1회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실습과 평가회는 대면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문화재단의 기존 교육과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 이론교육 이외에 실습과정이 마련된 것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참여자는 지역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로 사회활동이 정체된 사람에게도 활동 재개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적 기여도 할 수 있다.

문화와 미술이 융합된 예술작품인 그림책은 다양한 연령층에 사랑받아왔다. 글과 그림의 조화가 주는 기쁨은 읽는 이를 예술적 상상과 재미에 빠져들게 한다. 국내 한 지자체의 그림책박물관 조성계획은 높아진 그림책 인기를 반영하는 사례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모집이 '문화예술교육 발굴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라 전했다. 프로젝트는 문화인력육성과 융합적 교육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첫 시차인 이번 과정은 콘텐츠 소비에 머문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생산자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문화인력육성이란 프로젝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림책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의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하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수/기자











# 천안시축구단, '홈 3연승 + 1위 탈환'에 도전

천안시축구단이 2021 K3리그 6라운드 경주한수원을 꺾고 홈 3연승과 1위 탈환에 도전한다.

올 시즌 리그 무패를 기록하던 천안이 목포 원정길에서 첫 패를 가지고 돌아왔다. 목포에 선제골을 허용한 지 4분 만에 조주영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후반 추가시간에 다시 역전골을 허용하며 2위로 밀려났다. 1위 화성과는 승점 1점 차로 이날 경기 승리로 홈 3연승과 1위 탈환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시즌 초반인 만큼 선두권 승점 차가 크지 않다. 경주는 현재 승점 8점(5위)으로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천안과 경주의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

다.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 남준재, 최오백, 김영남 등 굵직한 영입을 마친 베테랑 군단 경주를 상대로 선두권회귀와 1위 탈환을 위해선 이날 경기 승점 3점이 더욱 절실하다.

천안의 홈 3연승 달성에는 조주영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목포전 동점골로 4경기 4득점, 리그 득점 2위에 오른 조주영은 올 시즌 유효슈팅 8개 중 6개를 득점으로 성공시켜 득점 성공률 75%를 기록 중이다. 팀의 승리와 리그 득점 1위 조동건(화성FC / 4경기 6득점)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결정력을 반드시 발휘해야 한다.

천안의 사령탑 김태영 감독은 “지

난 목포원정에서 리그 첫 패를 당했지만, 반면교사 삼아 홈에서만은 지지 않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홈경기 무패에 대한 각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선 중간고사를 마친 대학생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학생 축구동아리에 축구공을 지원하는 ‘우리 동아리의 힘을 보여줘!’와 이제우린 기념주 만들기, 스코어 예측하기 등 시험 스트레스는 날리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홈경기 정보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대전고등학교, 자전거(사이클)부 우수 성적 거양

동대전고등학교(교장 임동순)는 자전거(사이클)부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명실상부 자전거(사이클) 명문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남 나주시 전라남도사이클경기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고등부 자전거(사이클) 선수들이 참여,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는 선수들의 훈련량과 기량 변화를 점검하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동대전고는 유니엄 종합(기록132), 유니엄(포인트)(20km), 유니엄(템포레이스)(7.5km)에서 2학년 김하랑 선수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고, 1학

년 조정우 선수가 스크레치(7.5k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으며, 마지막으로 단체주발(4km)에서 4명(3학년 신진수, 2학년 임세걸, 김하랑, 1학년 조정우)의 선수가 은메달(기록4:37.809)을 획득하여 이번 대회 총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로 우리나라 자전거(사이클) 선수발굴의 중심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의 패거리는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으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대전고등학교 임동순 교장은 “자전거(사이클)부의 발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독,코치와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피나는 훈련 끝에 맺은 결실과 산물”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익산시청 육상부, '전국대회'메달 휩쓸어

익산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가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휩쓸며 육상 최강팀임을 입증했다.

익산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경북 예천군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익산시청 육상부가 총 7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여자 일반부 800m와 1천500m 경기에 출전한 신소망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의 영예를 안았으며 남자부에서는 현재 국가대표인 유규민 선수의 세단뛰기와 김영민 선수의 멀리뛰기 종목 출전으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이희영 선수와 정다운 선수의 해머던지기, 신유진 선수의 원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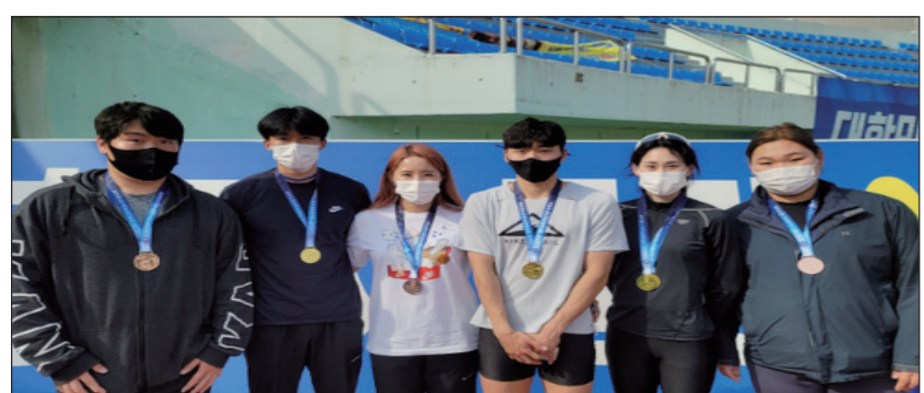
던지기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신소망 선수는 대회 2관왕을 달성함과 동시에 1천500m 경기에서 4분 28초 48로 대회 신기록을 달성함으로써 익산시 육상부의 저력을 보여줬다.

신유진 선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출전하는 일반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는 등 뛰어난 실력을 보여 유망주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와중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육상 선수단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태백시, 태백산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성황리에 폐막

### 대회 개최, 방역에 모두 성공, 향후 전국대회 롤모델

태백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태백국민체육센터 등 태백 소재 3개 체육관에서 2021년 태백산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를 철저한 준비로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17팀, 여고부 13팀, 여중부 12팀, 남중부 16팀 등 총 58개 팀에 선수 및 임원 870여명, 심판 등 운영진 100여명, 학부모 600여명 등 총 1,600여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태백시 전국 대회였다.

이번 대회의 최대 관건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당초 태백시와 한국중·고배구연맹은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했으나, 진학 관점으로 관람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관람 허용 학부모의 수를 학교당 15명으로 제한하고 대회 개최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관람시 음식물 섭취 금지, 거리 띄우기를 위한 지정 좌석제 등을 도입했다.

관람지침이 알려지자 코로나19 검사비용과 확인서 제출 등의 문제로 학부모들의 반발과 항의가 있었으나 태백시와 한국중·고배구연맹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해당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했고, 그 결과 성황리에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최만식/기자



## FC안양, (주)개성건설과 공식 후원 계약 연장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 FC 안양(구단주 최태호 안양시장)이 (주)개성건설과 공식 후원 계약을 연장했다.

지난 16일 오후, 안양종합운동장 귀빈실에서 FC안양과 (주)개성건설의 광고 후원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FC안양 장철혁 단장, (주)개성건설 박형국 대표와 양상화 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19년부터 FC안양과 함께 한 (주)개성건설은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FC안양의 공식 후원사로서의 지위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 FC 안양은 경기장 광고, SNS 노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주)개성건설의 광고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주)개성건설은 지난 2003년 창립 이후 신뢰와 혁신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꾸준히 쌓아온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로 (주)개성건설만의 색을 지닌 미래지향적 건설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주를 받아 광명, 흥천, 춘천 지역 행복주택을 시공중에 있다. 또한 2022년 7월 완공 예정인 '안양

평촌개성하이뷰'를 포함해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에서 (주)개성건설이 증축/신축한 건물은 약 30개에 육박한다.

(주)개성건설 박형국 대표는 “안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으로서 FC안양에 대한 후원을 2021년에도 이어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2019년부터 FC안양과 함께 하면서 우리도 많은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다. 앞으로도 FC안양이 목표하는 성적에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후원 소감을 밝혔다.

FC안양 장철혁 단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FC 안양을 이렇게 계속 후원하기로 결정해주시는 (주)개성건설에 감사드린다”며 “(주)개성건설과 함께 FC 안양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FC안양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랜드FC와 2021 시즌 여덟 번째 경기를 치른다.

원종균/기자



##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팀, 2021년도 국가대표 선수(투로) 2명 선발 쾌거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팀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충청북도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3회 회장배 전국우수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윤동해(투로-남권전능) 선수가 국가대표에, 전성진(산타-60KG) 선수가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되는 쾌거를 올렸다.

윤동해(투로-남권전능) 선수는 남권 9.68점, 남도 9.67점, 남곤 9.68점으로 총점 29.03점을 1위를 차지했고, 안현기(투로-태극전능) 선수는 태극권 9.68점, 태극급 9.69점으로 총점 19.37점을 얻어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또한 전성진(산타-60KG) 선수는 결승전에 올랐으나 준결승전에서 당

한 부상으로 결승전에서 기권패 하면서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됐다.

여준기 운영단장(경주시체육회)은 “코로나19로 훈련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큰 성과를 올려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우수한 성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우수수 감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계훈련을 성실하게 해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선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 2R] KLPGA 장하나, 이틀 연속 선두...36세 배경은 첫 통과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둘째 날 장하나가 강풍 속에서 단독 선두를 지켰고 36세 현역 최고령 배경은은 투어 복귀 두 번째 대회 만에 컷을 통과했다.

장하나의 경남 김해의 가야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중간합계 8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2위인 박민지와 장수연, 정세빈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순위표 맨 위를 지켰다.

대회 첫날 6언더파를 몰아쳤던 장 하나는 초속 5~6m의 강풍이 불어닥친 2라운드에서도 타수를 잃지 않고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이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장 하나는 2라운드를 마친 뒤 “바람

에 맞서 싸워 이긴 하루였다. 급해지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다행히 몇 번의 위기를 잘 넘겼고 2라운드를 2언더파로 잘 마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산 상금 48억 3091만 46원으로 1위를 달리는 장하는는 이번 대회에서 통산 1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장 하나는 “보통 가을의 경기력이 최고로 올라오는데 올해는 초반부터 감이 좋다. 지난 겨울 한국에서 훈련한 효과를 확실하게 보는 것 같다”며 “2라운드까지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한 만큼 마무리도 잘하고 싶다. 내 샷을 믿고 남은 라운드도 잘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다연은 5언더파로 단독 5위에 올랐고 김유민, 송가은, 전우리 등이 4언더파 공동 6위에 포진했다.

최근 3년 연속 KLPGA 대상을 차지한 최혜진은 중간합계 2언더파로 박현경 등과 함께 공동 14위에 자리했다.

은퇴 후 시드 전을 거쳐 7년 만에 KLPGA 투어로 돌아온 36살 현역 최고령 배경은은 2오버파 공동 48위로 컷을 통과해 복귀 두 번째 대회 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전순희/기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